

속리산은 선사가 머물던 곳... 돌에 그 시작과 끝을 새기다

49 세속을 떠난 세속 속리산 법주사(상)

세속(世俗)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봅시다. 사전에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의 앞뒤를 바꾸어 속세란 말도 자주 씁니다. 사전에서는 속세를 불교용어로 구분하고 '불교의 세계가 아닌 일반사회를 일컫는 말'이라 풀이합니다.

세속이든 속세든 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모여 사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 산다는 것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서로 얽혀 복잡한 관계들을 형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관계란 개인적인 갈등에서부터 민족이나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먹고 자는 등의 기본적인 것부터 명예와 권력과 재력 등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냅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세속(속세)을 벗어나는 것은 욕망에 끌려 사는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뜻이 됩니다. 왜 벗어나느냐? 욕망의 근원을 끊고 순수한 인간의 본연을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본연은 불성(佛性), 부처의 성품입니다. 누구에게나 갖춰진 부처의 씨앗을 찾아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떠나 수행하는 것이고, 그 부처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비추어 욕망의 암흑에 덮인 세상을 밝히고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에도 세속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에 들어가도 거기 사람이 있는 한 세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을 떠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세속 아닌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 어디든 그곳이 세속을 떠난 곳입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이 도를 멀리하려 하는구나.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는데 사람이 산을 떠나려 하는구나.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은 속리산(俗離山)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세속을 떠난 산이되 세속과 더불어 있는 산. 사람 사는 세상에 있되 사람 사는 세상을 떠난 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암시는 생각할수록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상징되는 도는 늘 변함이 없



법이 머무는 절이라는 뜻의 속리산 법주사 일주문.

지만, 사람의 인심과 풍속은 늘 변하는 것이어서 산과 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주사(法主寺). 법이 머무는 절이란 뜻인데, 어디 법이 머물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능화(의)의 <조선불교통사>에서는 신라의 의신(義信)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절 지을 터를 찾아다닐 때 흰 노새가 이곳에 이르러 발길을 멈추고 울어서 살펴보니 과연 비범한 곳이라서 절을 짓고 부처님 법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여 법주사라 이름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시대배경이 맞지 않는 설화지만, 이 절이 갖는 신앙적 의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이 머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을 구하고, 그 법대로 살고, 그 법을 전하는 간절한 염원이 서린 곳이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여 성취하고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되돌리는 종교니까요. 이렇게 산의 이름과 절의 이름을 생각하는 동안 오리 숲을 걸어 수정교 앞에도 도착했습니다.

흰 눈이 두텁게 덮인 숲길의 끝에 작은 비각이 하나 있고 그 옆에도 돌난간 속에 비가 두 개 서 있습니다. 비각 안에는 '속리산사실비(俗離山事實碑 忠淸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가 서 있습니다. 1666년(조선 현종7년)에 세워진 이 비석은 속리산 수정봉 위에 있는 거북바위가 중국의 재물을 조선으로 불러들인다는 속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의 글을 지은 사람은 유명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고 글씨는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1672)입니다. 우암과 동춘당은 당시 노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예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 유학의 거장들이 글을 쓰고 글씨를 써서 수정봉 거북바위 이야기를 비석으로 남긴 것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석의 높이는 163cm로 아담합니다.

머리에 눈을 덮어쓰고 돌난간 안쪽에 서 있는 비석은 '벽암대사비(碧巖大師碑 忠淸북도 유형문화재 제71호)'입니다. 보은 출신인 벽암 각성(碧巖覺性:1575~1660) 스님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호남지방에서 활동한 승병장으로 서산 대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승군을 일으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남한산성 축성을 3년 동안 지휘했으며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종남산 송광사, 속리산 법주사를 중창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난극복의 최전방에서 몸은 아끼지 않았고, 선봉진격을 위해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벽암 스님의 부도와 비는 생시에 중창에 힘을 기울인 쌍계사 화엄사 송광사 법주사 등 네 사찰에 조성됐습니다. 법주사에는 부도는 없고 비만 남아 있는 사람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1664년(조선 현종5년)에 세워진 비의 본문은 춘추관수찬관을 지낸 정두경(鄭斗卿:1597~1673)이 썼습니다. 내용



벽암대사비와 속리산사실비비각에는 국난극복과 선종 진작에 힘쓴 벽암 대사의 면모가 기록돼 있다.

은 현종 4년(1663년)에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화엄사의 비문과 비슷합니다.

자식이 없어 칠성신에게 지극히 기도를 한 어머니가 꿈에 오래된 거울을 보고 임신해 대사를 낳았다고 합니다. 9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세에 설목 장로 앞에서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었는데 어느

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했다. 20여 리를 갔는데 호랑이가 따라 오다가 절 문에 이르렀다. 선사는 호랑이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멀리서부터 와서 서로 헤어지게 되니 너 또한 애썼다"라고 말했다. 호랑이가 선사의 주위를 세 번 돌고 는 거듭 울부짖으며 떠나니 절의 승려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다.

송운 유정(松雲惟政)이 부휴 선수(浮休善修)에게 편지를 보내어 "법을 이을 사람을 얻었으니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비문에는 명나라 장수 이종성이 대사를 보고 4세기 때의 서역의 고승 불도정(佛圖澄)과 동진의 대학승 도안(道安) 스님과 같은 분이라고 평한 일화와 스승인 부휴 선사와 함께 무고로 옥에 갇혔다가 왕(광해군)이 친히 국문하고 풀어주며 선물을 하사했던 일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문에는 벽암 대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맞아 펼쳐 일어나 승군을 조직해 구국의 횃불을 밝혔던 일들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난세(亂世)입니다. 그것은 인간 욕망이 본래의 인성을 더럽히고 자연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난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 보이신 성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부처님의 법

은 그 모든 성현들의 지혜를 총섭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머물러 지키는 법이 있으면 나아가 전하는 법도 있으니 부처님의 법을 닦고 전하는 일은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습니까.

법주사 수정교를 건너기 전에 만나는 벽암 대사의 비는 한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간 수행자의 면모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래된 거울을 꿈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또한 오래된 거울을 보듯 벽암 대사의 생애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문의 대미를 장식한 비명을 읽어 봅시다.

고려 말에 태고보우(太古普惠) 공(公)이 있어 중국에 들어가 불지(佛指)를 얻고 해동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선풍이 크게 떨쳐져 스님들이 팔방(八葉)에서 고승(龍象)이 되기에 이르렀다.

괴로움의 바다에 배를 띄워 중생을 구하였고 그 본원을 본받으니 실로 임제(臨濟)의 정종(正宗)이로다.

높디높은 속리산은 선사가 머문 곳이니 돌에 새겨 그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임란 때 승병장 하던 법주사 중창주 벽암 스님 쌍계사에는 부도 있어도 법주사에는 비만 남아

날 부휴(浮休:1543~1615) 대사가 스님의 그릇을 알아보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부휴 대사는 서산 대사와 함께 부용영관(芙蓉靈觀:1485~1577)의 선맥을 이은 당대의 걸출입니다. 그러니까 부용의 법맥이 부휴와 서산으로 이어졌고 부휴는 벽암에게 서산은 사명당 유정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벽암 대사는 사명 대사와 같은 항렬인 셈입니다. 비문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한 토막 전합니다.

선사가 일찍이 몇 명 사문과 함께 발길을 가는데 큰 호랑이가 포효하며 나타났다. 여러 승려들이 두려워하였으나 선사는 웃으면서 "이 늙은 다만 우리를 위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

나라 장수 이종성이 대사를 보고 4세기 때의 서역의 고승 불도정(佛圖澄)과 동진의 대학승 도안(道安) 스님과 같은 분이라고 평한 일화와 스승인 부휴 선사와 함께 무고로 옥에 갇혔다가 왕(광해군)이 친히 국문하고 풀어주며 선물을 하사했던 일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문에는 벽암 대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맞아 펼쳐 일어나 승군을 조직해 구국의 횃불을 밝혔던 일들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난세(亂世)입니다. 그것은 인간 욕망이 본래의 인성을 더럽히고 자연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난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 보이신 성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부처님의 법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 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 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부터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